



말하지 않은 사랑
나는 울지 않았다
내 슬픔은 조용했고

내병은 조용히 나를 데려갔다
감정보다 먼저 생각했고
사랑보다 먼저 이해했다
당신을 위해 산다는 것
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
나는 그렇게
사랑했다

죽음까지도 차분히 받아들이며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사랑 <이광수>
작품 설명	이 시화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사랑을 모티브로, 천옥남의 조용한 헌신을 두루미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.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는 '고결한 마음'과 '인내'를 상징하며, 천옥남의 삶과 닮아있다. 매화 아래 선 두루미는 사람을 말하지 않았지만, 오직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뎠다. 슬픔을 품고도 미소 지었던 그녀는 사랑을 말 대신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다. 묵묵히 살아낸 그녀의 시간은 매화처럼 조용히 피어나 봄이 되었다. 그녀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깊고 따뜻했다. 이 작품은 말 없는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고운지 봄처럼 속삭이는 듯하게 표현하였다.